

세네갈 정치·경제동향

2009.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3

세네갈(Republic of Senegal)

I.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²	G D P	133억 달러(2008년)
인구	12.7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1,047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448 (2008년)

- 아프리카 북서부 내륙에 위치한 세네갈은 한반도 수준에 달하는 국토 면적(197천 km²)과 12.7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말리, 모리타니,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와 접경하고 있음.
-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비동맹 중립, 親 서방 외교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 정보통신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Abdoulaye Wade 대통령이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아래 안정적 국정운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는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6.2	5.1	2.0	4.5	4.7
재정수지/GDP	-3.1	-2.8	-5.9	-3.8	-5.5
소비자물가상승률	1.8	1.3	3.9	6.2	4.3

자료: IMF, EIU

□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세 유지

- 2004-05년 세네갈 경제는 농산물 및 광물자원 중심의 수출 호조, 관광 및 정보통신산업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평균 5.7%의 양호한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6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부문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2%로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7-08년 관광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4%대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노력과 농업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FDI 감소가 일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각각 3.5%, 3.6%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 경기부양책 실시 등 각종 개혁추진으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004-08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4.2%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가 식료품 및 부탄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재정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반등 여부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외원조 또한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6.3%로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 2004-06년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산물 생산 호조, 유로 페그제의 긍정적인 영향 등으로 3% 미만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음. 한편 2006-08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기록적인 상승세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가 평균 4.8%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농산물 수확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국제 식료품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각각 2.0%, 3.1%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3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세네갈은 통신, 금융서비스, 관광업 등의 3차 산업이 총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개도국형 시장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동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역 자유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비교적 높은 생산비용(에너지, 운송비 등)과 취약한 내수기반으로 인해 제조업의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기여도('07년 기준): 3차 산업(65%), 제조업(18%), 농업(17%)

□ 고갈 중인 석유·천연가스 자원

- 세네갈은 1961년 최초로 석유(Sebikhotane) 및 천연가스(Taman) 육상 광구를 발견한 이래 연간 약 2.1만 배럴의 석유 및 2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왔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생산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자원부는 동국의 천연가스가 향후 12년간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주변국인 모리타니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세네갈 북부지역에서 석유 채굴 작업이 한창이나,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채굴 실적은 없음.

[성장 잠재력]

□ 서부아프리카의 물류 허브로 부상 중인 다카르(Dakar)

-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Dakar)는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항만물류기업인 DP World는 다카르 국제항만을 지난 60년간 운영해오던 프랑스 볼로레(Bollere) 그룹을 제치고 다카르 국제항만 운영권 및 사업권을 따내어 지난 2008년부터 직접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수년간 약 4.5억 유로를 투자하여 현 다카르 항만 시설을 3배 가까이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DP World는 자회사인 Jafza International을 통해 다카르 인근 지역에 약 8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650 ha 규모의 경제자유통합특구를 건설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물류 허브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시장

- 동국의 통신시장은 1997년부터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중*인 소나텔社 (Societe Nationale de Telecommunications: SONATEL)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통신시장이 총 GDP의 7%를 차지). 이에 따라, 2000년 553,000명에 불과하던 휴대폰 가입자수는 2007년에는 3.6백만 명까지 증가한 바 있음.

* 2009년 4월에는 SONATEL의 정부 지분 27% 중 9.78%를 프랑스 통신회사 (France Telecom)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약 3.9억 달러 규모).

□ 2009년 금 생산 개시

- 세네갈은 2009년 3월, 동서부에 위치한 사보다라(Sabodala) 광산에서 첫 금 생산을 개시하였음. 동 생산을 담당하는 호주 광산업체인 미네랄 디포지트(Mineral Deposits)은 올해 16만 트로이온스의 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정책성과]

□ 관광산업 육성 활발

- 세네갈 정부는 현재 연간 약 8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0년까지 1.5백만 명, 2015년까지 2백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07년 3월

에는 관광 관련 활동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를 기존의 18%에서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 세네갈의 관광산업은 그동안 수도인 다카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남부 카자망스(Casamance), 세인트 루이스(Saint Louis), 탐바쿤다(Tambacounda) 등으로 관광지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광 상품별로는 기존의 문화유산, 생태관광 중심에서 최근에는 낚시, 골프, 고급호텔 리조트 등 고급(high-end) 관광객들을 겨냥한 레저형 관광 상품을 육성해 나아갈 계획임.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2008년 9월 World Bank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세네갈은 총 181개 국가 중 149위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르완다(139위), 부르키나파소(148위)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2007년도에 발표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순위가 무려 19 단계나 상승한 바 있어 비즈니스 환경의 개혁 속도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순위 상승에는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도입과 국경무역을 위한 정부의 공공행정 전산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513	-567	-733	-1,180	-1,551
경 상 수 지 / G D P	-6.7	-6.9	-7.7	-10.5	-11.7
상 품 수 지	-986	-1,311	-1,600	-2,081	-2,571
수 출	1,509	1,578	1,594	1,650	1,743
수 입	2,496	2,889	3,194	3,731	4,313
외 환 보 유 액	1,386	1,191	1,334	1,660	1,675
총 외 채 잔 액	3,940	3,883	1,984	1,798	1,773
총 외 채 잔 액 / GDP	51.7	47.1	20.8	16.0	13.3
D . S . R .	15.4	14.1	13.2	8.6	7.1

자료: IMF,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수산물, 인산염, 석유화학 제품 등의 견고한 수출기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동국의 취약한 경제구조,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輸入)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8년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11.7%인 약 16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2009-10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에 힘입어 수입(輸入)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원예제품의 수출 또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9.5%, 8.1%로 축소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16억 달러('06) → -21억 달러('07) → -26억 달러('08)

- 소득수지: -63백만 달러('06) → -82백만 달러('07) → -79백만 달러('08)
- 서비스수지: 94백만 달러('06) → -15백만 달러('07) → 32백만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8.4억 달러('06) → 10억 달러('07) → 11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개선 추세

- 외환보유액은 동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을 향한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007년 FDI 유입액은 322백만 달러를 기록). 2004년 14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17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총 외채규모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GDP 대비 50%를 초과하는 등 외채부담이 심각하였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850백만 달러(명목기준)의 공적 외채 부담을 덜은 데 이어 2006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체결함에 따라 외채 상황이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음. 그 결과, 2004년 39억 달러(GDP 대비 51.7%)에 달하던 동국의 외채규모는 2008년에는 18억 달러(GDP의 13.3%)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2004년 15.4%에서 2008년 7.1%까지 낮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대외지급 능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95억 달러('06) → 112억 달러('07) → 133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20.8%('06) → 16.0%('07) → 13.3%('08)
 - 외채상환비율(D.S.R.): 13.2%('06) → 8.6%('07) → 7.1%('08)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로서 정치 안정세 지속

-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지난 1981년 다당제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 이후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등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로서 평가받고 있음. 2000년 취임 이래 2007년 재선에 성공한 현 Abdoulaye Wade 대통령은 적극적인 해외순방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 인프라 개발, 평화적인 외교정책 등을 추진해오며 국민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어,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참고>

주요 약사

- 1859-1865 세네갈 내 각 부족왕국 프랑스 식민지화
- 1956 프랑스 공동체 내에서 자치정부 수립
- 1958. 12월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와 연합하여 말리연방 수립
- 1960. 8월 말리연방 탈퇴, 독립 선포
- 1960. 9월 Leopold Sedar Senghor 대통령 선출
- 1976. 4월 제한적 복수정당제 도입
- 1980. 12월 Senghor 대통령 사임
- 1981. 1월 Abdou Diouf 대통령 취임
- 1981 복수정당제 도입
- 1993. 2월 Abdou Diouf 대통령 3선
- 1993. 5월 총선 실시, 집권 사회당 승리(120석 중 85석 획득)
- 1998. 5월 총선 실시, 집권 사회당 승리(140석 중 93석 획득)
- 1997. 7월 개각(Mamadou Lamine Loum 총리 내각 출범)
- 1998. 8월 헌법(1992년) 개정(대통령 3회 이상 연임제한 철폐)
- 1999. 1월 상원의원 선거 실시, 사회당 압승('99. 2월 상원 공식 출범)

- 2000. 3월 Abdoulaye Wade 대통령 취임
- 2001. 1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새 헌법 채택(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대통령의 국회 해산 권한 도입 등)
- 2001. 2월 새 헌법에 따라 국회 해산
- 2001. 4월 국회의원 선거 실시(여당이 120석 중 89석 획득)
- 2004. 4월 Macky Sall 총리 임명
- 2007. 2월 Abdoulaye Wade 대통령 재임
- 2007. 6월 총선 실시, Wade 대통령의 SOPI 연합이 150석 중 131석 획득
Cheikh Hadjibou Soumare 총리 임명
- 2007. 9월 세네갈 상원 개원

□ 주변 및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 지속

- 세네갈은 비동맹주의에 입각한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AU),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 지역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주변 및 서방국가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 2005년 10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투자 활성화, 원조 계약 체결 등 양국 간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종족 - 종교세력 간 평화적인 화합 유지

- 세네갈은 다양한 종족 및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Wolofs족이 총 인구의 35%, Pular족이 20%, Sereres족이 17%, Diolas족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Mandingues족, Soninkes족, Bassaris족, Bediks족 등 다양한 종족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 언어 또한 불어가 공용어

이기는 하나, Wolof어, Sereres어, Pular어, Diolas어 등 종족별로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종교적으로도 총 국민의 94%가 회교, 5%가 기독교를 이루고 있고 토착종교인 원시신앙(Animism)이 상존하는 등 다양한 종교 분포를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종족·종교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어 있어, 종족 및 종교세력 간 별다른 갈등 없이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남부 카사망스(Casamance) 지역의 치안 불안 지속

-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남부 카사망스(Casamance) 지역의 분리운동은 세네갈의 만성적 안보이슈로 남아있음. 동 분리운동은 가톨릭과 토속 종교를 믿으며 Diola어를 사용하는 카사망스 지역의 주민들이 동 지방의 회교화에 반대하여 분리운동을 전개한 것임.
- 1991년 정부와 반군 간의 휴전이 타결되고 2004년 12월에는 Wade 대통령의 중재 아래 카사망스 분쟁 관련 평화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동 평화협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분리세력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카사망스 지역의 치안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평화협약은 반군 측의 항구적 무력투쟁 포기 및 정부-반군 간 후속교섭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8. 10)
- ICRG : 105/140 (2007. 12) → 117/140 (2008. 11)
- I.I : 107/177 (2008. 9) → 98/177 (2009. 3)
- Euromoney : 145/186 (2008. 9) → 153/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모든 위험에 대한 인수 가능
(단, 장기 공공부문 거래에 대한 인수는 제외)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HIPC Initiative, MDRI를 통한 채무탕감

- 세네갈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이 50%를 초과하여 과중한 외채부담에 시달렸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서 850백만 달러(명목기준)의 공적 외채를 탕감 받은 데 이어, 2006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실시하는 등 외채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동국에 대한 대외원조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2004년 15.4%에서 최근 7%대까지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세네갈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22,540	32,870	41,168	산업용 전자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수산물, 전자부품, 섬유제품
수 입	4,583	8,706	7,245	
합 계	27,123	41,576	48,413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2년 10월 19일 (북한과는 1972. 9. 11)
- 주요협정 : 무역협정('75), 경제기술협력협정('79), 문화협정('79), 투자보장협정('8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08)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약 48백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산업용 전자제품, 자동차,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약 41백만 달러, 수입은 수산물,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약 7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08년 12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6건 499천 달러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북서부 내륙의 전략적 지리에 위치한 세네갈은 열악한 경제 인프라와 3차 산업에 편중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및 광물자원 중심의 수출 호조, 관광 및 정보통신산업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09-10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와 농업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의 영향으로 대외원조 및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일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제반 경제 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적으로는 2000년 출범한 Abdoulaye Wade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주변 및 서방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아래 안정적인 국정 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부 카사망스(Casamance)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리운동은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